

# 한국수자원공사 새 경영 비전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가치, 사회적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경영 비전과 4대 전략을 선포했다.

지난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선포된 새 경영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이다. 자연과 인간, 현재와 미래세대,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겠다는 다짐을 의미한다.

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량과 개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서비스 공기업으로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방향으로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가치 우선, 공평한 물 서비스 제공, 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등의 경영 원칙을 설정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새로운 물관리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모여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는 건강한 물서비스, 모든 국민이 공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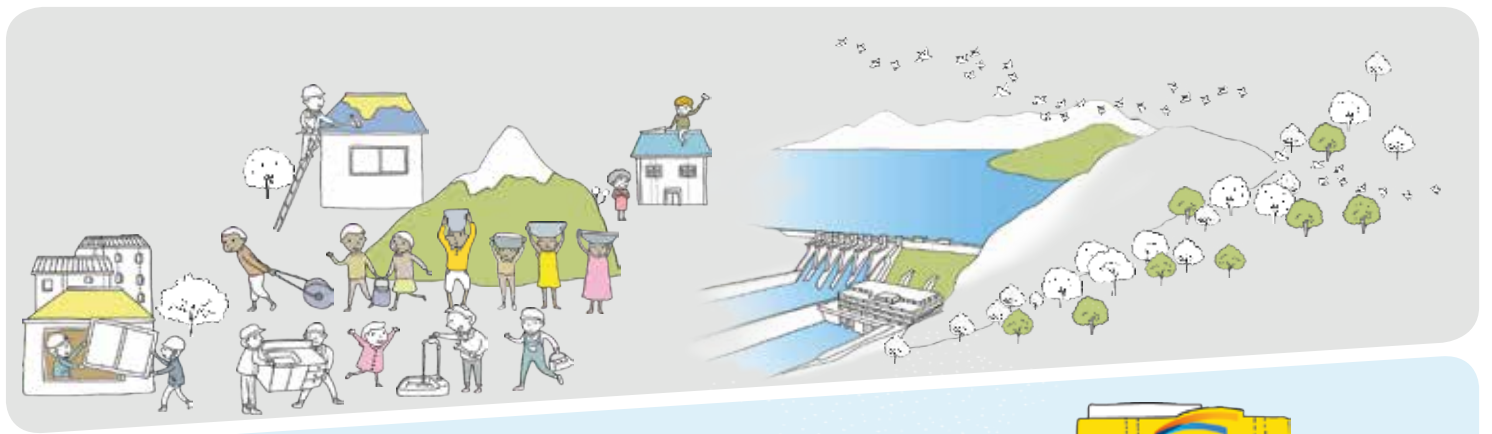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하게 누리는 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비전 선포에 이어 전 직원이 인권 중시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자원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직원대표 및 임직원의 인권경영 선언 모습



## 세상을 흐르게 하는 힘! K-water, 행복 물길 50년!

사람과 사람 사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전한 희망의 반세기!  
더 깨끗한 물,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나눔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K-water는 다목적댐 등에서 나오는 발전, 용수 판매수익의 일부를 모아  
댐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